느타리 원목 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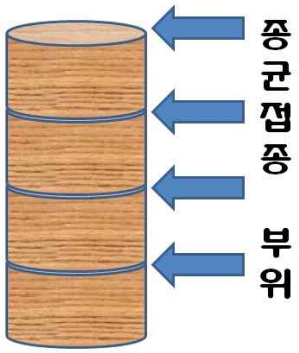
1. 나무종류 및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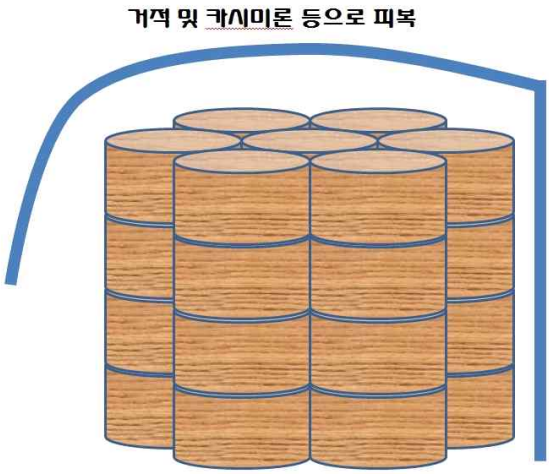
느타리 재배에 적당한 나무의 종류는 미루나무, 황철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현사시나무 등의 버드나무과와 벚나무, 오리나무가 있으며,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의 침엽수류는 수지 성분이 많아 재배에 부적절하다.

단목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굵기가 직경 10cm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수량과 재배적 조건을 고려할 때 15~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무의 준비는 낙엽이 진 후 물이 오르기 전까지 11월 ~ 2월 중순이전에 나무를 베어야 하면 1m내외의 크기로 잘라서 그늘에서 2~3개월 건조시켜 접종한다.

2. 접종방법

접종장소는 창고 또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비 -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며, 종균 접종작업 직전에 나무를 길이 20cm 내외로 토막을 내면서 종균을 부수어 나무토막 위에 얹고 종균위에 토막을 포게는 방법으로 3-4단 정도 쌓아 둔다. 이 때에 나무를 토막낸 순서대로 사용하며 그렇지 못할때는 나무의 굵기가 비슷한 것을 포개서 넘어지지 않도록 쌓는다. 종균은 나무토막의 가장자리부분을 두껍게 놓고 가운데 부위는 얇게 넣는다.





접종이 끝나면 거적 또는 카시미론 등을 덮고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주고 여름철 고온기에는 위에 비닐을 제거하여 고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관리방법

온도는 20-25도 정도로 맞추어주면 좋으나 외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접종 후 10-15일 정도가 지나서 종균부위가 하얗게 균사가 재생이 되면 비닐을 열고 거적 또는 카시미론에 물을 뿌려 주워서 종균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

이후 점차 균사가 왕성하게 자라거나 기온이 높아져 27℃이상의 고온이 되면 생장이 지연되고 잡균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매일 온도를 조사하여 23℃ 내외의 최적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땅에 묻기

9월 중하순경에 나무토막을 때어 2/3정도 땅에 묻고 그늘막을 쳐주고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 묻는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관수가 쉬우며 수확기간 중 관리가 편리한 곳으로 한다. 특히 배수가 불량하면 버섯의 발생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골목이 빨리 부패하여 수확기간이 단축된다. 묻는 요령은 토막과 토막 사이는 15 ~ 20cm 의 간격을 두어 버섯 발생 시 서로 닿지 않게 한다.

토막을 묻는 이랑의 너비는 1m정도로 하며, 이랑 사이에는 50cm 정도의 통로를 만들되 이랑보다 낮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골목 위와 이랑사이에는 볏짚이나 목초 등을 덮어 골목과 토양의 건조를 막으며, 버섯이 발생한 이후 관수를 할 때 흙이 튀어 버섯의 품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5. 버섯 발생

버섯의 발생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10월 상순경이 되므로 버섯 발생 10여 일 전에 충분한 물을 살수 하여 버섯 발생이 촉진되고 생육시 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 버섯은 주로 골목의 껍질과 목질부의 경계부위인 형성층에서 많이 발생한다.